

자 료 I

# 참여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 / 7대 추진과제

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(위원장 배순훈)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난 8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'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'과 관련하여 제19회 국정과제 회의를 광양시청에서 개최하였는데, 이번 회의는 재경부·산자부·건교부·해수부·예산처장관 등 당연직 위원,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위원과 대통령 비서실장, 정책실장, 정책수석 및 비서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, 본 과제는 이번 회의에서 공식적인 국가계획으로 채택되었음.



## 물류로드맵 주요 내용

### 세계 최고수준의 공·항만 개발 (World Best Three Ports)

#### 인천국제공항

- ▶ 인천국제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한 "다시 찾고 싶은 동북아의 중추공항"으로 육성하기 위하여
- 인천공항의 2단계 확장사업을 2008년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적극 지원하고,
- 2010년 완공 목표인 제2연륙교도 송도 신도시 개발 등을 감안하여 조기 완공을 추진키로 하였음.
- 또한 인천공항의 주변지역을 경제자유구역, 관세자유지역 및 국제업무지역으로 조성하여 세계적 기업의 물류거점과 비즈니스 중심화하여 신규 기·종점 항공수요를 유발하고,
- 항공노선망 확충을 위하여 신규노선을 발굴하고 전략적·단계적인 항공자유화(open sky policy)를 추진하되 우선 한·중·일 항공자유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.
- ▶ 아울러 3년 이내에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네덜란드 스키펀 공항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천공항의 운영을 개선키로 하고,
- 공항서비스 지표개발과 정기적인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음.

#### 부산항·광양항

- ▶ 한편, 부산·광양항을 혁신적인 통합물류 서비스체제 구축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요소요소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북아의 관문항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

- 2011년까지 부산신항 30선석, 광양항 33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며, 항만배후단지를 물류기업, 인근산업단지, 대학등과 연계하는 국제물류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.
- 특히, 상해항 개장과 부산항의 항만시설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'05까지 부산신항 3선석을 조기 완공하고, 이에 맞추어 배후단지 2만평도 우선 완공할 계획.
- 시설에 비하여 물동량이 부족한 광양항은 항만시설 외에 항만배후물류단지 및 범광양만권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하여 광양항의 물동량을 증대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음.
- ▶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항만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 이내에 싱가포르·로테담 수준의 항만 생산성을 확보하고, 마케팅과 경영능력이 대폭 강화된 부산항 항만운영공사를 내년 초에 설립하기로 하였으며, 매년「한국 최고의 컨테이너 부두」를 선정하여 항만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로 함.
- ▶ 그리고 환적화물 확대를 위하여 공동운항 참여선사를 한 묶음으로 하여 터미널 운영사를 선정하고, 동북아 컨테이너항로 변화와 경쟁항의 환적화물 유치전략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함.
- ▶ 해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톤세제를 도입하고, 북중국·일본과의 연계수송망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국해운시장의 비관세 장벽해소와 피터선사의 전용 터미널 확보를 지원하기로 하였음.

- ▶ 우리나라 국내·국제 물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7대 추진과제를 선정.

## 7대 추진계획

### 교통시설 투자배분 조정

**첫째**로 그 동안 도로부분에 편중된 SOC 투자를 지양하고 대량교통수단인 철도와 연안해송의 수송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하여

- 교통시설 투자배분을 대폭 조정하여 항만·철도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기로 하였음.
- 유럽의 예 : 철도투자액(1,885유로)이 도로투자액(818유로)의 2.3배

### 화물운송 거부사태와 관련하여

**둘째** 국제경쟁력을 가진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선진화하고,

- 이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개별등록제를 조기 시행하여 진입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 차원에서 다단계 주선에 대한 대책을 강구.
- 아울러 물류업체의 대형화·종합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물류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.
- 또한 영세물류업체의 신뢰성 제고, 개별차주의 화물확보 지원을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제도, 화물직거래 정보화 등을 지원하고,
- 운송거부와 같은 물류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, 운송관련 법에「업무복귀 명령제」를 도입할 계획임.

**셋째** 물류거래 투명화를 위하여 신용카드결제 인센티브를 제고하고, 3자 물류기업 이용확산을 통한 거래투명화를 유도하기로 하였음.

### 물류인력 양성

**넷째** 물류인력양성을 위하여, 부산·인천·광양 등 주요 물류도시의 대학을 물류특성화 대학으로 지정·지원하고,

- 외국 우수물류기관과 연계하여 물류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국제물류활동을 펼칠 고급물류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할 계획임.
- 또한 항만연수원을 항만기능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여 공·항만 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에 따라 필요한 기

능인력을 적기에 양성하기로 하였음.

### 국제물류관련제도 개선 및 국제물류기업 유치

**다섯째** 국제물류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국제물류기업을 유치할 계획임.

- 이를 위하여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지역법을 통합·보완하고,
- 통관절차를 물류흐름 위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며, one-stop 단일통관창구(single window)를 구축할 계획임.
- 이와 같은 제도개선의 바탕 위에 2개 이상의 국제특송업체와 세계유수의 제조·물류기업의 동북아물류센타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고,
-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「국제물류지원센터」를 설치할 계획임.

**여섯째** 막힘없고 서류없는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,

- 기존 공·항만 등의 물류정보망의 완성도를 제고하고, 물류거점별·주체별로 분리되어 있는 정보망을 통합하며, 금융·보험·해외물류망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.

### 동북아철도망 구축

**일곱째** 으로, 향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경우에 대비하여 동북아철도망 구축사업도 동북아 국가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.

- 이를 위하여 동북아 국가 공동으로「동북아 철도 구축 타당성 조사」를 추진하고,
- 각국의 철도건설·운영·연구기관이 참여하는「동북아 철도 협의체」를 구성한 후 동북아철도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할 계획임.
- 앞으로 동북아철도망이 구축되면 우리 경제의 배후권역이 동북아·유라시아로 확대될 것임.